



동방박사의 믿음

<마태복음 2:1~12>



전 병 옥 목사 (나고야미나미교회)

올 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다가왔다. 벌써 쇼핑센터에서는 성탄을 알리는 크리스마스트리와 캐롤송이 등장했다. 교회보다 앞선 행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음을 먼저 알려 주는 것이 세상의 사업터가 되어버린 현실이 씁쓸할 때가 있다.

젊었던 시절 성탄 준비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아름다웠던 옛 추억들이 아련하다.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신앙적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복음에 대해 한 없는 감사와 소중함을 마음에 담고 그 탄생을 알리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일일 것이다. 2000년전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고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의 행적들을 돌아보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한다.

동방박사들은 진리에 대하여 열린 구도자들이었다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새로이 발견한 범상치 않은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어떻게 유대인들의 말을 믿고 그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알고 보면 신앙은 신비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듣지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진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궁구하는 구도자들에게는 복음은 언제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오늘도 이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 이역만리를 찾아왔다. 천신만고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나 그 기쁨을 맛보았다. 그리고 준비한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 당시 최상의 가치를 지닌 귀한 물건들이다. 여기에는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를 향한 진실된 고백이 녹아 있다.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초월한 고백이 담겨있다.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인 것이다. 이렇게 신앙고백은 소중한 가치를 지님을 우리에게 교훈한다. 복음은 비교될 수 없는 절대가치이다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정성과 태도는 어떠한지? 너무도 값싼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탄을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며 복음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자.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아기예수를 만나 경배한 동방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무서운 세상의 절대적 권세를 지닌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결단이었다. 불의한 권세자의 말보다는 아기 예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동방박사들은 생명까지 감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복음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때로는 동방박사들처럼 생명을 건 도전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일본이 이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복음을 지켜가는 것이 때때로 외롭고 고단한 길이다. 그럼에도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며 복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가도록 하자.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72ページ
- 価格: 3,0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宣教110周年記念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110周年準備委員会は、大会を記念して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



일본그리스도教会와의 선교협력위원회를 개최

작년2017년11월23일에 가졌던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와 일본그리스도교회(CCJ)와의 선교협약체결 20주년을 지나면서 금년에는 지난 11월13일에 <제17회 선교협력위원회>를 일본그리스도교회 카시와기(柏木)교회에서 가졌다.

KCCJ에서는 총회장 김종현목사, 부총회장 김건목사, 서기 조영철목사, 선교위원장 정연원목사, 신도위원장 김신아목사, 관동지방회장 장경태목사, 총간사 김병호목사 외 데이빗 메킨토시 선교사가 참석하고, CCJ에서는 지난 10월에 새롭게 선출된 대회의장 久野真一郎목사, 서기 傳英二목사, 섭외위원장 富永憲司목사, 섭외위원으로 佐藤泰將목사, 大石周平목사, 藤守義光장로 등이 참석했다.

금번 위원회는 2부로 구성하여 제1부에는 공개 강연회, 2부는 종래의 위원회를 가졌다. 먼저 제1부의 강연회는 오후 1시부터 29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내년 2·8독립선언 100주년 및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면서 서정민교수(메이지가쿠엔)를 초빙하여 <2·8조선유학생 독립선언, 및 3·1독립운동 100주년 한일 기독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독립운동의 시대적 배경, 그 정신과 의의 그리고 그 당시 조선과 일

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열강을 하였으며, 청중들의 활발한 질문과 의견이 나왔다. 양 교단은 이러한 배움을 가지면서 2019년2월 25일~28일에 3·1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제2부의 선교협력위원회는 총회장 김종현목사의 개회 설교에 이어 지난 회의록을 확인하고 각 교단의 보고 및 근황을 보고하였다. 협의에는 양교단의 공통과제인 小子 고령화로 인한 신도의 감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신도(장로) 설교자의 육성, 목사 재교육 제도 및 양교단의 교역자 人事 교류 등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내년에 세계개척교회공동체(WCRC)의 동북 아시아부회의 회장교회가 KCCJ가 되는 것의 확인이 있었다.

CCJ의 대회의장 히사노 신이치로목사의 폐회 기도로 협의회를 마치고 장소를 요츠야3초메의 <사이카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참가자 전원이 식사를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 : 김건목사)



大阪教会

김용성명예장로 소천 총회나 한국YMCA에서 오래 봉사



지난 11월3일 오사카교회 金勇聖명예장로가 지병으로 소천하여 정례식을 거행하였다. 향년 75세.

故 김용성장로는 오사카교회의 故김관옥장로의 장남으로 1943년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 2세이며, 오사카교회의 2대째 장로로 섬겼다.

1988년 장로장립을 받아 2013년 명예장로로 추대받기까지 오사카교회를 섬겨왔으며, 총회의 역사편찬위원장, 재일본한국 YMCA이사장, 관서YMCA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애신보육원의 원장으로도 섬겨왔다. 은퇴 후에는 후배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김지일목사는 고인의 장남이다.

熊本教会

안병현 명예장로 소천 전후에 곧 개설된 교회를 오래 봉사



지난 8월2일, 구마모토교회 安秉琰 명예장로가 지병으로 소천하였다. 향년 92세.

고 안병현 명예장로는 1926년 경상북도 경산군에서 태어났고, 1951년에 구마모토교회가 설립되자 그 다음 해인 1952년에 세례를 받고 교회 발전에 참여해 왔다. 1973년에는 구마모토교회에서 장로 장립

을 받았다.

1996년에 은퇴할 때까지 오랫동안 구마모토교회를 섬겨 왔고, 봉사해 왔다.

<연말 연시 업무 안내>

총회 사무실은 하기 기간에 사무실 업무를 휴무합니다.
2018년 12월 25일 ~ 2019년 1월 4일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 기념예배 거행 나고야교회서 찬미대회



지난 10월28일 중부지방에서는 종교개혁501주년을 맞아 지방회내 교회가 함께 모여 연합예배와 더불어 성경암송 및 찬양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나고야교회 부목사로 시무하였던 노정일 목사님을 강

사로 에스겔 3: 1 - 3 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틴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2부 성경암송대회에서는 7개 교회가 참가해 성경암송과 찬양대회를 가졌다. 각 교회별 자유롭게 성경을 암송하고 지정곡과 자유곡으로 진행된 이번 찬양대회에서는 나고야교회가 사랑상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믿음상에는 토요하시교회가, 소망상은 오가키교회에 돌아갔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열리는 종교개혁기념 연합예배와 찬양대회는 지방회 내 12개 교회가 종교개혁의 의미와 지방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大阪教会

여성회가 특별집회 개최

주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여성회

2018년 10월 14일, 오사카교회 여성회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여성회'를 주제로 싱어송라이터 진노우치타이조목사를 초청하여 특별 집회를 개최했다.

- 제 1 부예배~하나님의 프로듀스 (예레미야 29장 11절)
- 제 2 부예배~내가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 제 3 부예배~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복음 17장 21절)

의 주제로 말씀과 간증을 하면서 Amazing grace, 비둘기처럼, 바람이 보고 싶어서, God bless you 등 많은 곡을 노래했다.

오사카교회 여성회는 2년에 한번 10월 둘째 주일에 전도를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의 집회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당일 예배당에는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분도 있었고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한 신도도 많았다.

참가자 모두는 진노우치타이조 목사의 설교, 간증,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가 되어 웃고 노래하는 감동이 넘치는 은혜의 집회였다.

(보고 : 오사카교회 여성회)



고난의 역사 속에서 주가 함께 계시는 교회

이 상 덕 목사

미요시(三次) 교회가 있는 히로시마県 미요시市는 산과 강이 아름다운 고을이다. 마침 이맘때 나타나는 아침 안개는 미요시의 자랑거리이다. 앞으로 펼쳐질 겨울의 설경은 압도적인 신비 자체이다. 강변 두루미의 모습, 공중의 술개의 움직임도 아름다운 미요시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고을도 일제말기 전쟁의 영향은 피할 수 없었다. 반도에서 강제연행 되어 온 수천 명의 조선인이 미요시에서 가까운 고보(高幕) 댐 건설현장에 투입되었다. 가혹한 작업현장에서 수많은 조선인이 다치고 죽었다. 작업 실수로 사람이 산 채로 콘크리트에 묻혀 죽기도 했다. 탈출하다가 잡히면 거의 반죽음이었다. 한편, 히로시마 원폭투하 후 많은 피폭자들이 열차를 타고 미요시로 쉼도해왔을 때는 미요시 전체가 패닉상태였다.

이 미요시에 조선인 교회가 시작된 것은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후였다. 제1대 목사님이 부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1948년 10월 25일이 미요시 교회의 공식적인 창립일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1947년의 어느 때부터 몇 명이 모여 한국어로 예배하고 있었다. 당시 그들의 눈물과 기도의 정신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지금의 미요시 교회에 계승되어 있다.

그동안 미요시 교회에 부임해온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목회 기간은 대략 3~4년간이었다. 예외적으로 10년간 교회를 지키신 목사님도 한 분 계셨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없어서, 히로시마 교회나 오카야마 교회의 목사님이 미요시 교회의 임시당회장이 되어주셔야 했던 시기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미요시 교회의 교우들은 1948년 10월 25일의 창립 이전에도 주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리던 초기의 신자들처럼, 그러한 무목(無牧) 시절들을 눈물과 기도로서 극복했을 것이다.

미요시 교회의 예배출석자가 가장 많았던 건 1995년의 18명이었고 교회학교가 33명이던 때(1955년)도 있었다. 2018년 가을인 지금, 미요시 교회는 예배에 모두가 출석하면 (어린이까지) 14명이고, 교회학교는 4명이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일제시대에 반도에서 건너온 조선인들의 자손이며 예배의 언어는 일본어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은 작년 5월말, 위임식은 작년 11월 11일이었다. 필자가 이 교회에 오고 기껏해야 1년 반이지만, 이미 우리 교회에는, 목사가 없던 6년간 눈물과 기도의 정신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신앙의 용사들이 계셨다. 이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미요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나!



2019년 전국교역자연수회 안내

- 일 시 : 2019년 6월10일(월)~13일(목) 3박 4일
- 장 소 : 캐나다 토론토
- 주 제 :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따라서'(행16:9) - KCCJ캐나다 선교사의 고향을 방문하며 -
- 참가인원: 50명 선착순
- 참 가 비 : 1인당 20,000원(토론토 현지 비용, 항공권은 개인이 구입)
- 주요 프로그램

<10일, 월요일> 18:00까지 토론토 지정 호텔에 도착, 개회예배 및 환영회

<11일, 화요일> 캐나다장로교회 본부(PCC), 캐나다연합교회 본부 방문(UCC), Henri J. M. Nouwen L'Arche Daybreak, 토론토대학 등 방문

주제강연 및 원로선교사들과의 만남(저녁 만찬과 함께) 강 연 : Glen Davis 선교사

<12일, 수요일> 재일동포 캐나다 선교사 자료전시관 방문, 나이아가라 폭포 방문, 폐회예배 겸 수요일예배

<13일, 목요일> 조식후 해산

※참가신청 : 2019년 1월31일까지 총회 사무실(메일, FAX)

●특집●2·8독립선언

<눈물의 옥중 크리스마스> (1)

가와사키교회 이 성 전 장로



1919년 2월 8일, 도쿄는 눈이 조용히 내리는 추운 날이었다. 바깥 온도와는 대조적으로 제일본동경기독교청년회 강당에는 조선인 유학생들의 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식전은 기독교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윤창석(尹昌錫)의 기도가 끝나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백관수(白寬洙)가 큰 소리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순식간

강당은 학생들의 만세의 함성으로 깨질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감시하고 있었던 경찰의 검속이 즉시 시작되어 장내는 고함과 의자가 날아가고 난무하는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20여명의 학생이 구속되고 눈 내리는 얼어 붙은 밤길을 신발도 신겨주지 않고 맨발로 니시칸다(西神田)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다. 며칠 후, 상해에 있던 이광수(李光洙), 최근우(崔謹愚)를 제외한 서명자 11명 중 9명이 이치가야(市ヶ谷) 감옥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석방되었다. 이것이 제국 일본의 권력의 중추였던 도쿄에서의 독립 운동의 시작이었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2·8 독립선언을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사실 도쿄 장로와 여학교였던 여자학원의 유학생 김마리아는 2월 중순에 옷의 허리춤에 독립 선언서를 몰래 숨겨 가지고 조선으로 건너가 각지에서 독립을 고취하고 3·1 독립 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쿄 유학생들도 또한 미국에서의 독립 운동의 영문 기사에서 영감을 받아 독립 선언서 작성을 계획한 것을 본다면, 1918년 1월 8일의 민족 자결(自決)을 가장 중요시 한 윌슨 미국 대통령의 14개조항의 선언 등,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자리 매김해야 한다. 물론 가혹한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에의 희구가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당시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은 기독교와는 땀겨야 땀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도쿄의 메이지가쿠인(明治学院、長老教)와 아오야마학원(青山学院、監理教), 이 두 학교는 많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배후에는 한일의 선교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다.

당시 일본 유학생은 독립을 슬로건으로 하여 일본으로 건너 왔다고 한다.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고학하면서 필사적으로 학문에 열중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일본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유

학생들의 이러한 지성이 훌륭하게 꽃을 피웠다는 것이 2·8 독립 선언서였다고 할 수 있다.

3·1 독립선언문은 종교인들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격조 높고, 비폭력을 내세운 선언문이며 도덕적 성격이 강하게 새겨진 선언서이다.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으면서도 배타적인 정신으로 달려가면 안된다는 직접적 일본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고 있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3·1 독립 선언은 세계 정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은 볼 수 없다. 그러나 2·8 독립 선언은 세계 정세와 일본의 동향 분석, 식민지 정책 문제에 대한 언급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조건부이긴 하지만 일본과의 협전을 선언하고 있다. 이 젊은 지성이 넘치는 선언문은 이광수(李光洙)가 초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계 정세의 분석은 백관수(白寬洙)의 것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일정한 합의하에 되어진 선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그의 저서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의 열매로 제국주의를 비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국의 수도 도쿄에서 외친 이 선언은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적하는 같은 비판적 영위였다고 할 수 있다.

마츠오다카요시(松尾尊兌)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를 "안으로는 입헌주의, 밖으로는 제국주의"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로 적중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아베이소오(安倍磯雄), 우치무라간조(内村鑑三) 등이 강연회, 성경 연구에 초청되어 간 것을 보아도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당시 조선 유학생은 실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면회나 차입을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YMCA 간사 백남훈(白南薰)이었고, 그는 구속된 9명 유학생의 변호사 선임에 분주했다. 布施達治, 花井卓三, 鶴澤聡明, 今井嘉幸 등 인권 변호사의 얼굴을 가지고 법조계의 중진이었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세력이 학생들의 변호를 맡아서 반란죄, 소요죄 보다 가벼운 출판법 위반으로 금고 2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백남훈(白南薰)은 옥중의 학생들을 자주 방문하였고, 12월이 되어 감옥을 방문하고 9명 모두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 기도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결과, 일본어 사용을 조건으로 허용되었다. 25일 당일 교화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전원이 눈물 어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였다 한다. 이듬해 3월 9일에 전원 출옥하여 청년회관에 가니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눈물을 흘리며 재회를 기쁨 서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女性のための電話相談

DVや子どもの問題など
ひとりで苦しんでいませんか
話すことは解決への第一歩...



セットン
☎ 06-6731-1616

〈電話受付〉第1・3・5週土曜日 正午12時~午後4時

日本語 第1・3・5土曜日 韓国語 第1・3土曜日